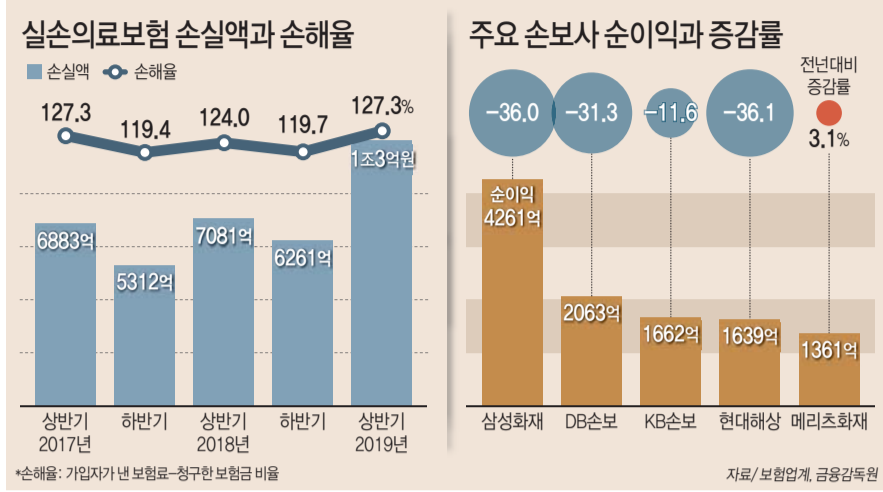


文케어 풍선효과?... 비급여 증가로 실손보험 '미운오리'

위기의 보험사 돌파구를 찾아라

〈中〉 손보사 실적 악화

실손 손해율 2년간 120% 넘어 보험료 인상 규제 발목에 '한계' 車정비수가·부품비 인상 등에 손보사 車보험 손해율 91% 달해 보험료 두 번 인상했지만 턱없어



손해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몰살이다. 한때 실적 효과 노릇을 하던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 진료료가 늘어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자동차보험은 손해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에 회의적인 상황이다. 올해 실손보험과 자동차에서만 3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손보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 48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조 1069억원) 대비 29.5% (6219억원) 감소했다.

전체 보험영업손실이 작년 대비 1조 1453억원 확대된 2조 2585억원으로 나타났다. 장기보험 판매사업비 지출 증가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장기보험의 경우 올해 상반기 2조 1263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판매사업비

와 보험금 지급 등 손해액이 각각 5546억원, 7893억원 등을 기록하면서 전체 장기보험 손실규모가 작년 대비 5132억원 확대됐다.

자동차보험 손실도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의 경우 정비요금 인상 등 원가상승 등에 따른 보험금 증가로 손실규모가 4153억원 확대됐다. 일반보험은 2862억원 이익을 기록했지만 국내외 보험사고(자연재해 관련 해외수재 등)로 손해액이 증가하면서 이익 규모가 작년 대비 43.1% (2168억원) 축소됐다.

◆ '文케어'로 커진 실손보험 적자

손보사의 수익성이 악화한 주요인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 진료료가 늘어나면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원수보험료 기준)은 110~140%다. 보험료로 100원을 받으면 보험금으로 110~140원

을 줬다는 의미다.

주요 손보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이미 100%를 넘었다. 삼성화재의 경우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117.2%로 전년 동기 대비 10%포인트 증가했고, 현대해상의 상반기 누적 실손보험 손해율은 147.2%에 달한다.

당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케어'가 시행되면 민영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크게 줄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손보험료가 최대 연 5%까지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상황은 정부의 예상처럼 돌아가지 않았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보험금 지급도 늘어나면서 손해율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2년 계약건수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2600만명까지 늘었고 2014년에는 3000만명을 돌파한 후 2018년 3400만명을 넘어섰다. 한때는 실적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까지 불렸다.

그런 실손보험이 문케어의 풍선효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실손보험은 의료기술 발달로 보험사기에 악용돼 오히려 보험금 누수의 주범이 됐고, 문케어 의료료가 급증한 데다 급여화되지 않은 비급여항목 진료비가 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한 것이다.

최근 2년간 121.8%, 123.2%의 손해율을 기록하는 등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더 늘어나고 있지만 실손보험료는 당국의 규제로 연간 최대 25% 이상 올리지 못한다. 그마저도 문케어가 약 8%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다며 보험료 인상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 車보험료 두 번 인상에도 손해율 높다

자동차보험 상황도 마찬가지다. 손보사의 실적 부진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영향이 크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의 누적 손해율은 84.7~103.6%를 기록했다. 업계에서 보는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이 77~78%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 누계 손해율은 적정 수준보다 약 10% 높은 셈이다. 즉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난다는 얘기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9개 손보사의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무려 90.8%에 달했다. 메리츠화재 84.7%, 롯데손해보험 96.8%, MG손해보험 105.9%, 삼성화재 87.1%로 집계됐다.

여기에 자동차보험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까지 더하면 적자는 더욱 불어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된 원인으로는 우선 지난해의 자동차 정비수가와 부품비 인상이 꼽힌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 등 탓에 자동차 정비업체 공임이 평균 2만 5100원에서 2만 9994원으로 19.5% 올랐다.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액만 연간 3142억원에 달한다.

또 올해 2월부터 표준약관 개정으로 노동가동연한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사고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장은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확대돼 보험사의 부담이 더 늘었다. 보험개발원은 노동가동연한 확대로 연간 보험금 지급액이 약 125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손보사들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보험료를 4~6%가량 인상했지만 여전히 손실을 메꾸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두 차례 보험료 인상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비수가, 최저임금 인상,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가동연한(취업가능연한) 상향 등을 반영한 결과다. 다시 말해 아직까지 보험영업 본연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보험료를 올리지 못했다는 얘기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손보사의 손해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 하반기에도 유사하게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당국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등 충격 완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응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금융위 직원들이 떠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박수를 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혁신 멈추지 말고, 원칙 충실해야”

떠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2년 여간 문재인정부의 금융수장 자리를 지켰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떠났다.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와 원칙을 지킨 구조조정, 포용적 금융정책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스스로는 신용정보법 개정 등 일부 금융혁신 과정이 마무리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이임식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과 모험자본 확산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후속과제, 금융포용성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부 금융혁신과제들이 마무리되지 못한 점

이 특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떠나는 금융위원장으로서는 무엇보다 원칙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정책에 있어서 언제나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두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겠지만 금융의 핵심원칙, 시장과 참여자에 대한 믿음을 등대삼아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무리하지 못한 금융혁신에 대해서는 당부를 남겼다.

최 위원장은 “어떠한 환경변화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금융혁신의 길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며 “우리금융의 미래는 금융혁신에 달려 있으며, 세상은 늘 변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성미 기자

외국인, 8월에 주식 2.3조 팔았다

석 달 만에 순매도 전환 한 달 만에 1.7조 순투자

외국인이 지난달 급락장에서 국내 주식을 2조원 넘게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 3430억원을 순매도해 석 달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 매도 규모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2조 2900억원, 500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유럽(-1조 5000억원)과 미국(-8000억원), 중동(-2000억원)에서 순매도 규모가 컸다. 아시아에서만

2000억원 매수 우위다.

국가별로는 ▲영국(-8000억원) ▲미국(-8000억원) ▲룩셈부르크(-3000억원) 등이 순매도한 반면 ▲말레이시아(1000억원) ▲버진아일랜드(1000억원) ▲네덜란드(1000억원) 등은 순매수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규모는 8월 말 기준 526조 5000억원이다.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3%다.

외국인은 국내 주식은 팔았지만 채권은 사들였다.

지난달 외국인 순매수액은 4조 996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만기상환 3조 2550억원의 영향으로 총 1조 7410억원

을 순투자했다. 한 달 만에 순투자로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에서 2조 3000억원을 순투자했다. 반면 중동(-4000억원)과 유럽(-4000억원), 미주(-2000억원)에서는 순회수에 나섰다.

종류별로는 국채(2000억원)에는 순투자하고, 통안채(-3000억원)는 자금을 순회수했다. 잔존만기별로는 1~5년 미만(2조 1000억원), 5년 이상(2조원)에 순투자했다.

외국인의 채권 보유 규모는 8월 말 기준 총 125조 9000억원이다. /안성미 기자 smahn1@

제네시스, 람보르기니 디자인 총책임자 영입

〈필리포 페리니〉

현대자동차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디자인 분야에서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고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네시스는 고급 스포츠카의 대명사인 람보르기니와 알파 로메오 등에서 디자인 개발을 주도해온 필리포 페리니 디자이너(사진)를 유럽 제네시스 선행 디자인 스튜디오 총책임자(상무)로 영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쿠페 등 스포츠카 전문 디자이너인 만큼 지

난 2016년 제네시스 쿠페 단종 이후 공백이었던 새 쿠페 모델 개발 등에 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6일부터 제네시스 브랜드에 합류하게 될 필리포 페리니 상무는 한국의 제네시스 디자인실과 협업해 제네시스 선행디자인 개발을 책임진다.

페리니 상무는 고급차 및 고성능 스포츠카 디자인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꼽힌다.

2004년 람보르기니 디자인 책임자로



선임된 뒤 2006년에는 람보르기니 디자인 총책임자로 임명됐다. 레벤톤, 무르시엘라고, 우라칸 등을 선보였다. 2015년부터는 폭스바겐

그룹 산하 이탈리아의 자동차 디자인 전문 기업 '이탈디자인(Italdesign)'으로 옮겼다. /양성운 기자 ysw@